

글로벌시대 한국 농업의 길

적소적재의 사람농업으로 가야



조은기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근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추진 발표 등 글로벌 시대 세계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자유무역 협정을 다각도로 맺고 있다. 한국 농업은 과연 글로벌 시대 길은 없는가? 세계는 물, 에너지, 농업, 건강, 생물다양성을 최대의 지구상 이슈로 삼고 있으며, 농업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보고서는 3F로서 연료, 식량 그리고 금융이 세계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세계의 식량과 식품은 안전하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고 누구나 진단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고급농산물의 소비 형태를 보면 한국의 농산물이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과 중국 자국의 농산물의 안전 신뢰부족으로 중국의 2만불 이상 소득자 5,000만명의 생필품과 일본인의 고급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소비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117만 농가(306만 농업인), 농경지 170만ha, 농기계 132만대를 사용하여 수출 51억불(‘11), 수입 234억불(‘11), 농가 호당평균 소득 32백만원(‘10, 농업 및 비농업 소득 포함), 농축산업 총생산액 43조원(‘10), 국가총생산에 대한 농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은 2.3%이다. ’95년 개방농정 이후 정부는 183조원을 지원하고 투자했다.

금후 FTA 대응한 2017년까지 54조원을 더 투자한다고 한다. 투자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의 흐름이다. 건강한 농촌은 투자의 흐름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는 경제논리 즉 사업성공적 측면의 논리보다도 정치논리가 앞서 있었던 것이다.

한국농업은 '신토불이와 흑묘·백묘 농산업 시대' 공동선언해야 한다. 방어농업에서 벗어나 세계 주역 또는 동북아 농업의 패자로서 글로벌농업을 열어야 한다. '흑묘이든 백묘이든' 농업경영자와 농장주 입장과 소비자와 국가 경영자 입장 모두의 입장에서 이제는 양자의 전략으로 가야 할 때이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세계발달 구조는 생계농업, 경제농업, 건강과 자연농업, 문화, 복지 및 인류공영 농업으로 약 4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경우 이제 생계농업을 지나 경제농업 진입 단계에 있다. 문화와 인류공영 농업은 북유럽 및 미국의 경우이고, 건강과 자연농업은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경제농업을 달성한 국가들이다. 아시아에서 생계농업을 지난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생계농업을 지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기술이 잘 먹히는 이유는 이제 막 생계농업을 지나 경제농업 단계를 시작하여 개도국에서의 생계농업기술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농업의 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토자원 창조이용'으로 건강 및 관광 농업 국가 육성하여 '농업 소득 70조원에서 300조원 가치 창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저수지, 강, 산 및 들과 논밭 종합 이용을 농촌거주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고, 전국의 4,440개산과 2만여개의 저수지, 5대강 및 지류, 170만 ha의 농경지 등으로 종합 활용하는 법안이 법제화되어야 하며 그 자원의 이용은 농촌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농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전국 농촌 마을 디자인화로 맞춤형 농촌모델로 육성 하도록 전국 3만 2천개의 마을을 특성화하고, 또한 건강장수 세계 관광 프로그램 운영 하여 한국의 식단, 문화, 여행 등으로 '한국 관광 1주일이면 1년이 젊어진다.' 는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과 식단을 조절하고, 의료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건강/관광 국가로 거듭나야 한국의 GNP가 4만불로 발전 가능하다.

둘째, '기업농산업과 복지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교육, 지도, 연구 및 현장이 함께하는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전국 농과계 대학에 인력육성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한국농업은 모래위의 성이다. '농산업과 또는 농장과' 의 정규 프로그램화하여 전국 45개 자연계 및 농업계 대학에 '농산업과 또는 농장경영과'를 설치하여 졸업후 학생의 진로를 농장 경영자육성으로 교육되도록 학교·기술기관·현지농장이 삼위일체 농업으로 농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규 교육생의 귀농이 연간 최소 1,500명 또는 3,000명 수준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연간 만명 규모의 귀농·귀촌자를 위한 농업·농촌 귀농 및 현장 교육 내실화 하도록 전문학교 설치 및 법제화 하여야 한다.



셋째, 생계농업에서 경제·복지 농업의 조직, 예산, 인력 등 기본구조 및 제도로 정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지금 한국농업은 이제 수입 개방에 대응한 여러 가지가 생계형 방어농업이었다. 이를 경제 농업 과 복지개념의 '공격농업'으로 전환하려면 모든 사회적 기반과 농업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선, 교수·연구원·직원의 평가 제도를 농산업 현장화 맞도록 전면 수정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연구하고 기술이 보급되고 농업인이 육성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관료중심의 기술 컨설팅에서 기업형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전환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경영체계를 갖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농업에 맞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 및 대학 기구의 현장화가 되어야 한다.

생계형 농업의 모든 방법으로 제도가 한계가 있다. 아울러 외부의 활용인력을 최대한 농촌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한다. 기술거래사, 기업경영사 등 컨설턴트 활용이나 종자·종묘·농자재 판매상 등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판매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군과 국가의 예산, 조직, 제도, 기구, 사업의 종합 최종 검정과 토론하는 농업인 중심의 '시군의 한국농업발전통합기구' 설치하여 새로운 이사진 구성 정부의 예산과 공공활동이 직원 중심이 아닌 조합원 즉 농업인 중심으로 투자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200만 조합원, 200조원 자산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사 중심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국농협이사회 사무국' 설치 운영하여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유통과 판매가 되도록 거듭나야 한다. 또한 농업인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일은 '농업인재해안전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부중, 농기계 신체 손상, 시설하우스 등 각종 산재보험을 해야 할 일은 도시의 2배 정도이다. 그러나 어떤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대안이 없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현재의 방어농업(생산과 원료농업)에서 수출농업(유통, 저장, 가공과 제품농업)으로 공격농업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국내농산물 수출농업과 외국 현지화 수출농업을 위한 대일본(동해안 지역)과 대중국(서해안 지역)농산물 수출기관 설립하고 기후변화대응 '국제농업전

략연구원 및 '국제농업회사' 설치를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외국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중장기 식량 수급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현지 대형농장 및 유통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므로 한국의 농산물이 쉽게 마케팅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적지적시적작의 작목지원정책인 '국제고구마연구원', '국제콩제품연구원' 등 설립과 가공·유통·저장 규모화 농업으로 전국의 170만 ha의 지역별 고도별 적합 작목을 기획하고 농업인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작목을 단순화 시키고 국가적으로 다양화하여 지역별 일정 소득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3~'95년 논산의 딸기, 보성의 차, 영양의 고추, 성주의 참외, 고양 선인장, 청도 복숭아, 상주의 감, 단양 마늘 등의 특화시험장에서 지금은 지역대표브랜드가 되었다. 이들을 가공, 문화, 관광 그리고 조사료 등 파급효과는 10배로 계상된다. 즉 300조의 경제소득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 친화형이고 손쉽고 무엇보다 건강식인 것이다. 또 다시 한국의 블루 아이콘은 '고구마' 인 것이다.

다섯째, 한국 농업은 '로컬의 힘으로 글로벌로 가야' 답이 있다. 그 이유는 기업경영 경험자 및 농업 전문가의 농촌으로의 유입 확대와 국내 대기업 및 농산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IT 기술 최강자, 융·복합기술, 생명공학 기술 경쟁력이 동북아 및 개도국에서의 경쟁력이 있어 국내의 자원의 한계에서 넘어선 농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며, 한국 자연환경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다. 또한 우리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자본력으로 농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 아울러 농자재 및 중소 농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한국은 집약농업을 한 결과 단위당 생산성은 높다. 여기에 농약, 비료 및 농자재의 집합장이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의 농자재는 국제경쟁력이 있다. 또한 농기계도 소농규모에 맞아 농기계관련 회사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농자재가 세계를 향하고 있을 때 한국 농업의 미래는 밝다.

종합적으로 한국농업은 '신토불이와 흑묘·백묘 농산업 시대' 공동 선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농업은 신토불이 농업이자 방어농업이었다. 신토불이의 농업이 한국의 농산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였다면, 이제는 더 크게 세계 주역 또는 동북아 농업의 패자로서 글로벌농업을 열어야 한다. 또한 외국 의 천연 자원을 이용하여 한국의 부족한 식량 확보와 한국농업기술자들의 외국진출을 지원한다면 한국의 경제영토와 식량영토는 확대되어 국제사회에 글로벌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금후 외국과 융·복합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저장 및 마케팅이 이루어 질 것이다. '흑묘이든 백묘이든' 농업 경영자와 농장주 입장과 소비자과 국가경영자 입장 모두의 입장에서 이제는 양자의 전략으로 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㉞